

백 플리트 장군과 한국군

白 善 燁

(6·25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 (예)육군대장)

1. 머리말
2. 미 제8군사령관이 되기까지의 경력
3. 미 제8군사령관 백 플리트 장군
4. 공산군 제5차 공세와 수도(首都) 서울의 사수
5. 공산군의 제6차 공세와 한국군 제3군단의 붕괴
6. 백(白) 야전전투사령부 창설과 공비토벌작전
7. 신생 국군의 상징부대 제2군단 창설
8. 국군의 집중훈련과 교육기관 설립
9. 한국군의 증편 및 증강
10. 맺음말

1. 머리말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적으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군이 되었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겨우 5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의 침공을 받았을 때만 해도 국군은 보잘 것 없는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이라는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오히려 크게 성장·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빈약한 무기와 장비, 군 간부의 경험 및 능력 결여, 병사들의 자질 및 훈련 부족 등의 악조건과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국군이 이처럼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미국의 우호적인 협력과 지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군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한국군의 증강에 찬성하거나 이를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극복하고 국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의 공로가 그만큼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미 제8군사령관이었던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1892-1992) 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밴 플리트 장군은 전쟁 기간 중인 1951년 4월부터 1953년 2월까지의 약 2년 동안 미 제8군사령관으로 재직했다. 나는 그 기간 중에 제1군단장, 휴전회담 한국측 대표, 백(白) 야전전투사령관, 신편 제2군단장, 그리고 육군 총참모장에 이르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와 긴밀한 협조·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밴 플리트 장군, 특히 우리 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이 일은 한국군 장교로서 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인 동시에 내가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과제이기도 하다. 일종의 증언이 될 이 기록이 6·25전쟁의 실상과 한·미관계의 역사적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미 제8군사령관이 되기까지의 경력

벤 플리트는 1892년 3월 19일 미국 뉴저지(New Jersey)주 코이트스빌(Coytesville)에서 윌리엄(Willam)과 메도라(Medora) 벤 플리트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플로리다(Florida)주 중부의 바토우(Bartow)에서 성장했다. 그는 1911년(19세)에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에 입학했는데, 강인한 체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체육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4학년 때는 육군 미식축구팀 선수로 활약했다.¹⁾

미식축구를 하면서 벤 플리트는 이 운동이 지상에서의 전쟁과 상관관계가 있는 아주 유익한 경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식축구와 전쟁은 모두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적을 무너뜨리고 땅을 점령하면서 전진하여 승리를 얻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그러했다.²⁾

그는 1915년 6월 12일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³⁾ 임관 후 벤 플리트 소위는 뉴욕의 플랫폼버그에 위치한 제3보병연대로 첫 보직을 받았으며, 1917년에는 캔사스주 레븐워스(Leavenworth)에 있는 육군군사학교의 무기 및 전술학 교관이 되었다. 다음해에는 제6사단의 기관총중대장이 되었고, 이 사단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그 자신도 제17기관총대대장(소령)으로 대(對) 독일전에 참전하였다. 그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상이

1) 1914~15년 시즌에는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브래들리(Omar N. Bradley) 와도 함께 뛰었다. 아이젠하워는 부상을 입어 오래 뛰지 못했으나 브래들리는 정규멤버로 경기에 출전하여 벤과 접촉이 많았다고 한다.

2) 폴 F. 브레임 지음, 육군교육사령부 자료지원처 번역실 옮김, 『승리의 신념』(도서출판 봉명, 2001), p. 48.

3)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들 동기생들은 미 육군사관학교 역사상 가장 높은 직위와 가장 많은 무공훈장을 받은 인재를 배출한 기수가 되었다. 동기생 164명 중에는 아이젠하워(원수, 미국 대통령), 브래들리(원수, 미 육군참모총장)와 벤 플리트 장군을 포함한 세 명의 4성 장군 등 59명이 장군이 되었다. 이들은 연령 및 복무기간의 행운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빛나는 무공을 세웠다.

휘장을 받았으며, 여러 전투에서의 용맹성을 인정받아 2개의 은성훈장을 받았다.

전쟁이 끝나 귀국한 후 13년 동안에는 여러 대학에서 학생군사교육단(ROTC) 관련 직위에 근무했다. 또 1921년에는 플로리다 대학교 미식축구 팀 감독이 되기도 했다. 1941년에 대령으로 진급한 후 1944년까지 3년 동안 제4사단 제8연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단과 함께 그 자신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했다. 육사 동기생의 다수가 장군으로 진급한 시기에 대령이었던 그는 이 해 8월 1일에 동기생보다 훨씬 늦게 준장으로 진급하여 제2사단 부사단장이 되었다.

이어서 2개월 만에 제90사단장이 되었으며, 11월 15일부로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군 복무 29년 만에 대령으로 진급한 그가 준장이 된 지 3개월 반 만에 소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이어서 1945년 3월에는 제3군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전쟁이 종료된 후 귀국한 그는 1946년 제2지원사령부 사령관 근무 중에 다시 유럽으로 발령을 받아 독일에서 미 유럽군사령부의 작전·계획·편성·훈련참모부장을 역임했다. 그 후 그는 1948년에 그리스 군사고문 및 기획단장이 되었다. 내전으로 분열된 그리스에서 공산주의 반란군과 싸울 수 있도록 군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군으로서 발탁되었으며, 부임 도중에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리스에서 공산군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자 1950년 7월 그는 승리의 기쁨을 안고 조국으로 돌아온 후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군사령관에 부임하였다. 이 사령부의 주임무는 모병, 지원병과 징집병의 입대 수용 및 교육 훈련, 예비군과 학군단의 편성 및 훈련, 지역 내 주방위군 감독 등이었다. 그가 이 직위에 취임한 시기는 마침 6·25전쟁이 발발한 때였으며,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전투력이 전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증강되기 시작하였다.

3. 미 제8군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

6·25전쟁은 1950년 10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다시 역전되어 그동안 기세 좋게 북진하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퇴각하고 있었다. 이 기간 중에 불의의 사고로 전사한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이 다음해 4월 맥아더 원수의 뒤를 이어 유엔군사령관 겸 극동군사령관직에 임명되자 그의 후임으로 벤 플리트 장군이 미 제8군사령관에 기용되었다.

벤 플리트를 이 직위에 추천한 사람은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그는 그리스 육군을 발전시켜 정예의 전투조직으로 만들어 놓는데 성공한 벤 플리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리지웨이 장군은 벤 플리트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벤 플리트의 증언에 의하면, 리지웨이는 벤 플리트가 자신의 사관학교 선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가 자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북해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전투에서 자신이 내린 조치에 대해 벤 플리트 장군이 비판했던 일을 언급했다고 한다.⁴⁾

이 문제는 당시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하여 마셜 국방부장관과 브래들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그렇지만 그리스에서 공산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서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트루먼의 강력한 지지에 의해 벤 플리트의 임명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벤 플리트는 1951년 4월 14일에 제8군사령관에 취임하였다. 다음날 그는 무쵸(John Muccio)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였다.⁵⁾

4) 『승리의 신념』, p. 405. 벤 플리트 자신도 리지웨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 동안 그의 밑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했다. 두 사람의 불화는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성격 차이로 인한 충돌이라고 할 수 있었다.

5) 이 대통령은 벤 플리트 장군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과 전승에 필요한 제반 자원의 사

이어 전선 부대를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첫 방문부대를 한국군 부대로 선정했다. 그리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국가 방위에 큰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1951년 4월 16일 밴 플리트 장군이 처음으로 방문한 부대가 동부전선의 한국군 제1군단이었다. 그때 본인이 고(故) 김백일 장군의 후임으로 제1군단장에 임명되면서 소장으로 진급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⁶⁾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8개 사단으로 북한군의 남침을 맞았던 우리 육군은 개전 초기의 패전으로 인하여 5개 사단으로 재편되었다가 당시에는 10개 사단으로 증편돼 있었다. 그러나 격전을 치르는 동안 각 사단은 승리의 영광보다는 패배의 고통을 뼈아프게 겪어야 했다. 대대, 연대는 물론 사단 전체가 궤멸될 만큼 타격을 입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사단장직도 경질을 거듭하여 전쟁 초기부터 그 직을 계속 맡아 온 사람은 어느덧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 동안의 2년 가까운 사단장 시절을 마감하고 이 시기 군단장직에 보임된 직후에 신임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⁷⁾

밴 플리트 장군의 초도순시에는 신성모 국방장관과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이 동행하였다. 나는 강릉에 있는 군단사령부에서 그를 맞이했다. 밴 플리트 장군의 전기 『승리의 신념(The Will to Win)』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는 이 시기 ‘한국군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한국군이 강하고 투지가 있고 사기가 매우 높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한국군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앞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한국군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

용 권한을 확인해 주었다. 밴 플리트 장군은 이 만남에서 이 대통령의 내면적인 강인함에 감복했으며, 이것은 향후 깊고 깊은 우정의 초석이 되었다. 『승리의 신념』, p. 326.

6) 제1사단장으로 있던 나는 ‘혈난한 작전(Operation Rugged)’이 시작되던 1951년 4월 7일 제1군단장에 승진·임명되었으며, 그리고 4월 12일에 경남도지사 관사에 있는 임시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소장 계급장을 받았다. 나의 후임으로는 육본 작전국장 강문봉 준장이 임명되었다.

7) 1949년 7월 30일부터 50년 4월 21일까지 제5사단장으로 약 10개월, 1950년 4월 22일부터 51년 4월 6일까지 제1사단장으로 약 11개월이었다.

했다고 한다.⁸⁾

이후 그는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으로 이동하면서 전선부대들을 시찰했다. 처음으로 제8군을 순시한 벤 플리트 장군은 매우 흡족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자신감 있는 병사들, 전방진지를 지원하는 막강한 화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4. 공산군 제5차 공세와 수도(首都) 서울의 사수

내가 제1군단장에 부임한 지 열흘 쯤 되었을 때 전선에서는 큰 격전이 전개되었다. 이 격전은 아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벤 플리트 장군은 적 포로의 진술과 임박한 적 공격 징후에도 불구하고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서 현 전선 북쪽에 설정된 와이오밍선까지 진출하는 공격작전을 전개하려고 했다.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도 이 공격계획을 승인했다. 공격은 4월 21일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인 4월 22일에 공산군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제5차 공세(제1차 춘계공세)로서 중서부 전선을 목표로 중공군 및 북한군 9개 군 예하 25만 병력이 동원된 대공세였다. 그 위세는 강력했다.

당시 내가 지휘하는 제1군단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병들은 중공군이 아닌 북한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감을 갖고 잘 싸웠다. 한국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싸울 때는 비교적 선전했다. 그러나,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전투 양상이 달라졌고 힘에서도 밀렸다. 내가 보기에는 북한군이 아마추어라면 중공군은 프로라고 할 수 있었다. 6·25 전쟁에 참가한 중공군은 대부분 장제스 군대에서 마오쩌둥 군대로 전환된

8) 『승리의 신념』, p. 327.

자들로서, 1945~49년 중국 내전에서 이미 상당한 전투 경험을 쌓았던 것이다.

중공군은 최초 미 제9군단 정면의 우익을 담당하고 있던 사창리의 국군 제6사단(사단장 장도영 준장)을 공격했다. 취약하게 보이는 국군을 목표로 삼은 것이었다.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제6사단은 곧 붕괴되어 무질서하게 후퇴했다. 이로 인하여 이 사단 우측에 위치한 미 해병 제1사단과 좌측에 위치한 제1군단 예하 미 제24사단의 측방이 노출되었다. 가평까지 뚫린 전선은 미 해병사단과 미 제3사단, 영연방 제27여단 등에 의해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사창리전투는 제6사단에게 치욕적인 전투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5월의 중공군 제2차 춘계공세 때 이 사단은 용문산에서 중공 제63군 예하 3개 사단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공세로 이전한 후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가평과 춘천을 거쳐 화천 발전소까지 진출하는 전과를 거둠으로써 크게 설욕할 수 있었다.

벤 플리트 장군은 해병 제1사단과 제24사단이 예비대로 측방을 방호하고 있는 동안 캔자스선으로 축차적인 철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 적의 강력한 공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서울 바로 북쪽의 골든선(Golden Line)까지 철수할 것을 건의하는 참모들과 군단장도 있었다. 그러나 벤 플리트 장군은 “전투도 치르지 않고 작전지역을 그냥 내줄 수 없다”며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산 동쪽 정면의 미 제1군단 예하 영국군 제29여단도 기습을 받았다. 영국군 글로스터(Gloucester) 대대는 적성의 한 고지에 고립된 채 60시간 동안 전선을 사수해 6·25전쟁에서 하나의 신화를 남겼다. 한편 인제 남쪽의 중동부 전선에서 국군 제5사단(사단장 민기식 준장)과 제7사단(사단장 김형일 준장)도 적의 공격을 받고 후퇴했으나, 미 제2사단이 뒤를 받쳐 돌파되지는 않았다.

이때 중부전선을 압박한 중공군은 4월 24일 주공의 제63군 예하 3개 사

단으로써 임진강을 건너 국군 제1사단(사단장 강문봉 준장)을 공격했다. 서울의 동측방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이 도시를 함락하려는 의도였다. 제1사단이 용감히 맞서 싸웠으나, 서울은 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중공군은 서울처럼 선전 가치가 높은 목표를 탈취하기 위해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대공세를 시도했던 것이다.

벤 플리트 장군은 자신이 증대한 결심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또 다시 서울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심했다. 이때 리지웨이 장군까지도 한강을 건너 후퇴할 것을 종용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군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수도 사수에 대한 그의 결의는 확고했다.

그는 지원화력을 대폭 증가시켜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적에 대해 대규모 무차별 사격을 감행했다. 즉, 공간을 내어주는 대신 적이 그만큼 인명상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전술을 구사한 것이다.⁹⁾

4월 29일, 드디어 서울 외곽 4마일 북쪽에서 전선이 안정되었다. 국군 제1사단을 좌익으로 하고 미 제3사단, 미 제25사단, 미 제24사단이 차례로 환상(環狀)의 방어선을 이루며 수색-북한산-퇴계원-외부의 선(골든선)을 사수했다.

벤 플리트 장군은 인천-김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습과 포격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적의 공격기세는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 사단 전선 전면에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중공군 시체들이 쌓여 있었다. 적 사상자수는 7만명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아군의 사상자수는 중공군의 1/10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아군은 협조된 철수작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9) 이 전술은 적의 ‘인해전술’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며, 후에 ‘벤 플리트 장군식 사격’으로 명명되었다. 그는 가능한 많은 공간을 확보해 놓은 뒤, 적이 이 점령지를 재탈환하려고 시도할 때 ‘벤 플리트 장군식 사격’을 실시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하려고 했다.

한국군 제6사단의 패배와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의 크나큰 손실 때문에 그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한국군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간부들의 훈련 수준이 저조하고 전투지휘 능력이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았다.¹⁰⁾

사창리 전투는 불행히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 10개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기 위한 무기와 장비 원조를 미국에 두 번째로 요청한 시점과 일치했다. 이 사태에 대한 제8군의 조사에서 한국군이 새로운 사단을 창설하기에는 군 지휘부가 너무 약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일찍부터 이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했던 벤 플리트 조차도 리지웨이의 권고로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결정된 추가지원 거부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벤 플리트 장군은 이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제6사단이 과거에 임무를 잘 수행했지만 군 간부의 리더십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리더십은 '고도의 책임감, 투철한 직업의식, 육체적·도덕적 용기 그리고 전투의 지를 그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자질들이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단에서 먼저 계발되어야만 한국군은 신뢰할 만한 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 공산군의 제6차 공세와 한국군 제3군단의 붕괴

유엔군은 공산군 제5차 공세를 저지했으나 전선은 문산, 의정부, 춘천을 빼앗긴 채 양평-홍천-인제의 선에 형성되었다. 이 무렵 다시 중부전선에 집결한 공산군이 또 한 차례의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 제8군은 적이 이번에도 서울을 공략하기 위해 서부전선을 노릴 것으로 판단하

10) 벤 플리트 장군은 한국군 제6사단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사단장 장도영 준장이 유능한 지휘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여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은 아군의 허점을 찔렀다. 제6차 공세(제2차 춘계공세)에서는 동쪽의 한국군을 노렸던 것이다.

5월 16일 저녁 중공군 2개 군단은 피리와 팽파리를 울리며 인제 서남쪽 소양강 상류를 건너 국군 제7사단과 제9사단의 협조점인 남전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과의 접점(接點)이기도 했다.

이어서 제7사단(사단장 김형일 준장)을 일거에 돌파한 중공군은 밤새 동남쪽으로 진출해 오마치 고개를 점령했다. 이로써 현리와 용포에 진출한 제3군단(군단장 유재홍 준장) 이하 제3사단(사단장 김종오 준장)과 제9사단(사단장 최석 준장)의 유일한 후방 보급로인 인제-하진부리 도로의 허리가 차단된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앞뒤에서 적군의 협공을 받게 된 제3군단이 택할 수 있는 방도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오마치를 차단한 중공군과 결전을 벌여 후방의 적을 돌파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산중으로 후퇴하는 것이었다. ‘결전’이나 ‘후퇴’나의 기로에서 군단의 두 사단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들은 야포와 트럭 등을 모두 버리고 남쪽에 치솟은 방대산으로 달아났다. 병사들은 개인화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장교들은 계급장마저 떼어 버린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제3군단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와해됨으로써 전선에는 현리를 중심으로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오마치와 상남리를 차단한 중공군은 계속 전과를 확대하여 18일에는 창촌리와 삼거리, 19일에는 속사리까지 진출했다.

이 사태에 가장 위기를 느낀 것은 동측방이 완전히 노출된 미 제2사단(사단장 러프너 Clark Ruffner 소장)이었다.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Almond) 소장은 제2사단으로 하여금 후퇴하는 제7사단 병력을 수습해 측방을 방호시키는 한편 벤 플리트 장군에게 즉각적인 증원군 파견을 요청했다. 벤 플리트는 정일권 총장과 함께 비행기편으로 한국군 제3군단사령부

로 급히 날아갔다.

5월 18일 하루 동안 미 제10군단 및 미 제2사단 포병은 4만 1천 발 이상의 포격을 가했으며, 미 공군기는 165회의 근접 지원 출격함으로써 제2사단을 포위 섬멸하려는 중공군을 가까스로 저지했다.

이때 본인이 지휘하는 제1군단 역시 서측방이 노출됐다. 그러나 태백산맥이 그 사이에 버티고 있어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나는 오대산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전선에 수도사단과 제11사단을 배치했다. 경강(京江)도로까지 진출한 중공군이 대관령을 넘어 강릉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강릉에는 우리 공군의 유일한 출격기지인 K-18비행장이 있고 산더미 같이 쌓인 폭탄과 보급품이 있었다.¹¹⁾ 따라서 이곳을 잃으면 동해안의 보급항과 공군 기지를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삼척 또는 포항까지 물러서야 한다. 나는 긴장되었으며 다급해졌다.

위기가 고조된 5월 21일 아침, 미 제8군으로부터 대관령 서쪽 용평의 제3군단 간이 활주로에서 있을 작전회의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군단 수석고문관 로저스(Glen Rogers) 대령과 함께 미군 L-19기를 타고 급히 대관령 너머로 날아갔다. 내가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미 제3사단장 라이딩스(Rugene Ridings) 소장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곧 2대의 L-19 경비행기가 서쪽 하늘에 나타났다. 그 비행기 중의 한 대는 적의 대공포에 맞아 기체에서 흰 연기처럼 가솔린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다.¹²⁾

벤 플리트와 미 제8군 작전참모 머제트(Gilman Mudgett) 대령이 각각 비행기에서 내렸다. 적의 대공포에 맞은 것은 벤 플리트 장군의 비행기였다. 그 비행기가 산중의 간이 활주소에 착륙하는 모습에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 F-51무스탕 전투기가 여기서 발진해 평양까지 출격했으며, 미 해병 비행사단도 강릉 기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12) 제3군단장 유재홍 장군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머제트는 즉시 두루마리 작전지도를 펼쳐 놓고 전황을 설명했다. 지도상에는 커다란 포켓이 남쪽을 향해 그어져 있었다. 전황은 과연 위급하고도 심각한 상태였다.

벤 플리트 장군이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이 협조해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제1군단은 우측으로, 제3사단은 좌측으로 공격하라.” 그는 지도상에 동서의 방향을 각각 가리켰다. 제1군단은 대관령에서 서북방으로, 미 제3사단은 하진부리에서 동북방으로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벤 플리트 장군은 “적에게 최대한의 징벌을 가하도록 하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는 또 국군 제3군단에 대해 언급하며 “나는 저항을 되풀이하는 후퇴(retrograde movement)를 지시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고 한탄했다. 내가 공격 시기를 묻자 그는 “지체없이!(Without delay)”라고 잘라 말했다.

10여 분 만에 작전회의를 마치고 강릉으로 귀환하며 나는 머리 속에 작전을 구상했다. 대관령이라는 유리한 지형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정예부대인 수도사단 제1연대(연대장 한신 대령)를 대관령에 급파한다. 이어 수도사단 정면을 서측으로 조정한다. 우익 제11사단으로 하여금 그 공백을 메우고, 해변의 개활지는 제1101공병단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고, 미 제7함대와 협조하여 전함의 함포에 의한 화력 저지(fire blocking)로써 이를 보강한다는 구상을 했다.

도착 즉시 두 사단장과 참모들을 소집해 작전계획을 설명했다. 이 작전의 초점은 남하 중인 중공군과 한계령에서 출발하는 제1연대 중에서 어느 편이 대관령을 먼저 점령하는가였다. 이동 거리로 판단할 때 아군이 몇 시간 빨리 대관령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히 이동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얼마동안의 시간이 지나도 제1연대의 이동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3시경 작전참모 공국진 대령이 극도로 흥분한 어조로 내게 보고했다. “송요찬 장군이 1연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명입니다.” 수도사단 담당 정면도 위급한 터에 연대를 뺄 수 없다는 이유로

송 장군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공국진 장군의 회상록에 기술된 당시의 상황이다.

작전명령은 오전 중에 하달했는데 제1연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중공군의 진공속도로 보아 오후에는 허허벌판이 된 3군단 지역을 통과하여 대관령에 그 선두가 도달할 것인데’ 하는 초조감으로 군단장에게 자주 호소했다. 군단장은 ‘좀 기다려 보자’는 투였다.

일몰 전에 제1연대가 대관령을 점령 못하면 중공군에게 선제공격할 공산이 크니 초조했다.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군단장 각하, 군단 아니 전군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처해 있는데 그런 연약한 통솔로는 안 됩니다.” “육군 소장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회대의 명장으로 그 이름을 남기시렵니까?”라고 외쳤다. 백 군단장은 대륙성 기질로 참을성이 강하여 좀처럼 화를 모르는 분으로 통해 있었다.

드디어 군단장은 화가 났다. “COL Rogers. Let’s go you, too!” 하며 45구경 권총을 차고 지프에 올랐다. 로저스 수석고문과 내가 동승하고 최고속도로 수도사단에 당도하여 “사단장은?” 하고 물으니, “침대차에 계십니다.” 군단장은 대갈일성 “귀관은 군단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했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송요찬 사단장은 군단장의 서술에 놀란 듯 벌떡 일어나며 “각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며 전화기를 들어 제1연대장에게 즉시 출동하라고 명령했다.¹³⁾

어떻든 제1연대는 급히 대관령으로 향했고, 밤 9시 경에 정상에 도착했다. 전투는 그 후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졌는데, 고지를 선점한 아군의 완승으로 전개됐다.

이후 적의 공세는 5월 23일을 고비로 수그러들었다. 나는 즉각 공세이전을 명령했다. 오대산에서 대관령 남쪽 일대까지 포진했던 수도사단은 산록을 누비며 적을 소탕했다. 군단은 이어 미 제3사단 및 미 제10군단과 호응

13) 仙谷 孔國鎭 回想錄, 『한 老兵의 哀歡』(원민, 2001), 184-185 중 ‘송요찬 장군과 대관령’.

하여 북으로 반격해 올라갔으며, 오대산에서 인제·원통까지 거침없이 진격했다.

한편 우리가 대관령 전투에서 적의 예봉을 꺾고 공세 이전에 들어가던 5월 25일경 벤 플리트 장군이 강릉의 K-18공군기지에 날아왔다. 탑승기에서 내린 벤 플리트 장군은 대기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프차 앞에 선 채로 정일권 육군총참모장, 이준식 육본전방지휘소장,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정 장군, 이로써 한국군 제3군단을 해체합니다. 또 육군본부의 작전통제도 없어집니다. 육군본부의 임무는 작전을 제외한 인사·행정·군수 및 훈련에 국한됩니다. 제1군단은 나의 지휘 하에 두고 육본 전방지휘소는 폐쇄합니다.¹⁴⁾ 그리고 제9사단을 미 제10군단, 제3사단을 한국 제1군단에 배속합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10여분 만에 이런 명령을 내리고 돌아갔다. 제3군단의 붕괴는 결국 육군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가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우리는 크게 낙담한 채 할 말을 잃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 넘겨준 뒤에도 한국 육군이 전선의 일부를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분담(分擔) 형식으로 전쟁을 치러왔고, 미 제8군사령관은 육군본부를 경유하여 국군에 대해 작전지휘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제3군단의 붕괴를 계기로 전선에 투입된 국군 사단은 제1군단 예하의 3개 사단을 제외하고 모두 미군 군단 예하에 들어갔으며, 국군 제1군단도 미 제8군 예하에 편입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작전에 관한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군단 규모로서는 내가 지휘하는 제1군단만이 존속하게 됐다. 이때 만약 제1군단마저 작전에 실패했었다면 육군은 군단 이상 고급 사령부 없이 전쟁

14) 육본전방지휘소가 예하 사단에 후퇴명령을 성급히 내린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이어서 육군 수뇌부의 진용이 개편되었다. 정일권 총장이 물러나고 이종찬 소장이 육군총참모장에 임명됐다.

6. 백(白) 야전전투사령부 창설과 공비토벌작전

공산군의 제6차 공세가 저지·격퇴되고 약 한 달이 지난 1951년 7월 초 밴 플리트 장군이 나를 찾아와 군단사령부가 아닌 간성에서 전황과 시국에 관한 대담을 나누었다.¹⁵⁾ 그 직후에 휴전회담이 개막되면서 나는 군단장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휴전회담 한국측 대표로 선정되어 개성으로 가게 되었다.¹⁶⁾

이후 밴 플리트 장군과의 만남은 그가 가끔 전황을 설명하기 위해 휴전회담 유엔군측 대표들이 있는 평화촌을 방문할 때였다. 그러던 중 8월 24일경 갑자기 밴 플리트 장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다음날 만나 함께 제1군단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혹시 군단의 전황이 나빠지지 않았는가 짐작하며 8군사령부로 갔다. 역시 내 짐작대로 제1군단의 공격이 지부진하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곧바로 진부령 동쪽에 자리잡은 제11사단사령부로 향했다. 사령부에는 밴 플리트와 나, 미 제10군단장 바이어즈(Clovis Byers) 소장, 제1군단 부군단장 장창국 준장, 제11사단장 오덕준 준장, 그리고 제1군단 작전참모 공국진 대령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때의 전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밴 플리트는 동부전선의 요충인 펀치볼 만은 꼭 탈환

15) 이야기 도중에 그가 중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서 내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16) 내가 휴전회담 한국측 대표로 활동하는 동안 부군단장 장창국 준장이 군단장 임무를 대리했다.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곳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적군도 이곳 일대에 부대를 집결시키고 거점 공사를 실시하여 진지를 요새화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8월 18일부터 한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이 개시한 편치볼 포위 공격은 혈투를 벌이는 격전이 되었다. 특히 제11사단은 고전하고 있었다. 험한 지형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때문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시키지 못한 것이 고전의 원인이었다.

나는 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105mm포로는 적의 유개호(有蓋壕)를 부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벤 플리트에게 155mm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동석한 바이어즈 군단장에게 155mm포 지원을 하명했다. 당시 바이어즈는 다른 부대를 지원할 형편이 못되었으나 군사령관의 강력한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이튿날 제11사단에 155mm 곡사포 1개 중대(6문)가 도착하여 적진에 포격을 가하고 동해상의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이 출격해 공중지원까지 가세했다. 열흘을 끌던 혈투는 이렇게 해서 단숨에 끝장이 나고 우리는 향로봉을 감제하는 고지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

제1군단이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벤 플리트 장군과 미군측의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있기는 마찬가지인 미군의 지원을 우리가 받아내게 된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그들의 실정을 잘 알고, 그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알고, 또 그들과의 좋은 관계와 신뢰를 구축한 상태에서 이런 발상과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평화촌을 떠날 때는 잠시 동안 군단에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투가 일단락된 후에 그대로 군단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후 전선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던 11월 중순 어느 날 이종찬 총참모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함께 숙의할 일이 있으니 8군사령부로 오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동송동 구(舊) 서울대학교 본부 건물의 제8군사령관실에는 벤 플리트 사령관, 애덤즈 소장(8군 참모장), 머제트 대령(8군 작전참모), 그리

고 이종찬 총장과 내가 자리를 같이 했다. 여기서 토의된 내용은 지리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계획이었다.¹⁷⁾

벤 플리트 장군은 나에게 “백 장군이 대(對) 게릴라전의 경험이 많다고 하니 이 작전을 맡아 주어야겠소. 작전에 차출될 병력은 2개 사단이요. 어느 사단을 선정할 지는 귀관의 의견에 따르겠소”라고 말했다. 지도를 펴놓고 그가 직접 설명한 작전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전 이남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백 야전전투사령관은 2개 사단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1개 사단은 해상으로 기동하여 남에서 북으로, 1개 사단은 육로로 기동하여 북에서 남으로 각각 지리산을 포위·공격한다. 공중 지원은 한국 공군이 전담하고, 경비행기 지원은 미군이 담당한다. 미 제8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방송국을 운영하고 배라를 제작 살포하는 등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을 지원한다. 작전의 세부 계획은 육군총참모장의 지시와 협조를 받아 수립한다.

벤 플리트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리스의 군사 지원단장으로 그리스군을 도와 공산 게릴라를 소탕하는 데 공로를 세웠던 대 게릴라전의 대가였다. 그가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은 그리스를 거쳐 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것은 우리로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머제트 대령과 따로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작전에 참가할 부대로는 수도사단과 제8사단¹⁸⁾을 지명했다. 공비토벌부대의 명칭은 미 제8군의 작전 명령서에 따라 「백 야전전투사령부(TASK FORCE PAIK)」로, 작전 명칭은 ‘쥐잡이(Operation Rat Killer)’로 명명했

17) 이 작전은 당시 국회가 후방 치안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벤 플리트 제8군사령관에게 이를 간곡히 요청해 결행키로 한 것이었다.

18) 송요찬 준장의 수도사단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데다 해상 기동이 용이했고, 최영희 준장의 제8사단은 황성에서 패퇴했으나 대구에서 재훈련을 받은 후로 그때까지 공비 토벌에 투입됐던 부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으며, 나는 11월 16일부로 토벌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¹⁹⁾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을 현지에서 수행해 오던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金容培 준장)와 각급 경찰부대가 나의 지휘 하에 들게 되었다. 나는 대구 육군본부로 가서 사령부 조직에 착수하는 한편 부대 임시 편성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 제반 사항을 조치했다. 미 제8군과 육본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는 신속하고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약 100명의 장교와 부사관으로 사령부 편성이 완료되고 토벌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자, 대전과 전주를 거쳐 사령부가 위치할 남원에 진입했다.

작전 개시 D데이는 12월 2일, 지리산을 포위한 3만여 명의 병력이 산정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작전은 토끼몰이와 같은 개념이었다. 포위망이 좁혀짐에 따라 공비들은 점점 산정 부근으로 후퇴했다. 그런데 처음 이틀간은 거의 전과가 없었고 포로도 잡히지 않았다. 작전 개시 전까지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였으나, 작전이 개시되자 국내외 신문들이 이 작전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으므로 전과가 없다면 체면이 서지 않을 듯했다.

이때쯤 벤 플리트 장군이 남원의 사령부를 찾아왔다. 나는 작전의 경과를 설명하고 전과가 없음을 걱정했다.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말라. 마스크에 대한 발표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작전에만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공개 사회의 고위 장성다운 여유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포위망이 좁혀든 후부터는 곳곳에서 전과 보고와 함께 포로들이 잡히기 시작했다.

토벌작전이 개시된 2개월 후인 1952년 2월 초 제8사단은 다시 전방에 투입됐고 수도사단은 그 후 약 한 달을 더 머무르며 작전을 마무리했다. 이 작전으로 공비가 근절된 것은 아니었으며, 휴전 이후까지 출몰하여 양민을

19) 사령관의 성(姓)을 부대 이름으로 넣은 것은 전혀 없는 일로서 나에게서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나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제1군단장의 후임은 이형근 소장이 맡게 되었다.

괴롭혔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위세를 떨치던 지리산의 남부군단은 이때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위축 일로를 치닫게 되었다.

7. 신생 국군의 상징부대 제2군단 창설

공비소탕작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52년 2월, 머제트 대령이 남원의 사령부에 은밀히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3월이면 100일 작전이 끝나는데, 밴 플리트 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에 제2군단을 창설하겠다는 내명(內命)을 받고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백 야전전투사령부를 기간으로 군단사령부를 편성하고, 사령부 요원들을 미 제9군단에서 일정 기간 교육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군단 창설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1개 군단(제1군단)만을 보유하고 있는 국군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군단을 증설해야 하겠지만, 화력 지원 능력이 없고 포병·공병·병참 등의 지원부대가 없이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름뿐인 사단을 보유한 군단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8군이 육군본부와 협조해 17개의 포병부대를 창설하고 공병·행정·보급 능력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머제트가 다녀간 얼마 후에 나는 수도사단이 공비토벌작전을 마무리하도록 남겨두고 제2군단 재건의 새로운 임무를 맡아 춘천 동북쪽 천전리²⁰⁾로 이동했다. 여기서 제2군단 창설 요원들은 천막을 치고 미 제9군단의 해당 부서에 배치돼 한·미 합동근무를 통한 교육에 들어갔다.

20) 지금의 소양댐 근처.

참모들은 약 5주간에 걸친 현장훈련 방식의 교육을 통해 미군의 조직과 운용에 대해 배웠다. 또 새 군단의 SOP를 작성하고 보병·통신·병참·병기·공병·공지 연락 등 모든 분야의 업무가 창설과 동시에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마침내 새로운 군단이 형체를 갖추게 되었다. 전차만 없을 뿐 군단 포병을 위시한 제반 지원 능력을 구비하여 제병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군 최초의 군단이었다. 국군은 이때 처음으로 155mm포를 갖춘 포병단(단장 노재현 대령)을 갖게 되었다. 제2군단은 신생 국군의 힘을 상징하는 부대로 탄생한 것이다.

1952년 4월 5일. 이날 소토고미리의 경비행장에서 거행된 부대 창설식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태영 국방장관, 이종찬 참모총장, 벤 플리트 제8군사령관, 무쵸 대사, 이형근 제1군단장, 오대니얼(John O'Daniel) 미 제1군단장, 파머(Williston Palmer) 미 제10군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1951년 1월에는 제2군단, 같은 해 5월에는 제3군단이 해체되는 쓰라림을 맞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한국군 군단의 탄생에 따른 감회가 더욱 깊었을 것이다.

벤 플리트의 전기(傳記)에는 제2군단을 창설하던 날이 그에게 행복한 하루였다고 써어 있다. 또한 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벤 플리트 장군은 군단장인 백선엽 소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그를 흠모하였다. 앞서 치른 동부전선의 치열한 전투에서 백 장군은 한국군 제1군단을 훌륭하게 지휘하였다. 백 장군은 6·25전쟁 초기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서도 계속해서 공세적으로 싸운 제1사단의 전투지휘관이었다. 이로써 그는 벤 플리트 장군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²¹⁾

21) 『승리의 신념』, p. 362.

그러나 제2군단 창설일이 그에게 행복한 날인 것만은 아니었다. 바로 전날 그의 아들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공군 조종사로 6·25 전쟁에 참전한 지미는 B-26기로 압록강 남쪽 50마일 지점에 위치한 북한 순천지역 정찰폭격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²²⁾

국군 제2군단은 제3사단(사단장 백남권 준장), 제6사단(사단장 백인엽 준장), 수도사단을 예하에 두고, 최전선 금성지구로 불리는 미 제9사단 정면을 인계받아 동부의 한국군 제1군단과 서부의 미 제10군단 사이에 배치되었다. 동해안의 제1군단에 이어 두 번째로 전선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미군이 제2군단의 창설을 도와 중부전선을 담당하게 한 것은 이곳이 그들의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미국은 이때 NATO군 창설을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전선으로의 병력 동원에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국군에 대한 집중 훈련과 화력 지원을 통해 국군이 단계적으로 전선의 담당 폭을 늘려야 함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내가 신설 제2군단장을 맡은 이후 진지전으로 교착된 전선은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휴전협상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장소를 옮겨 속행되고 있었으나, 포로송환이라는 난제에 부딪혀 회담은 정체된 상태였다. 이때 내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중공군이 국지적인 대공세를 우리 정면에 가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중공군은 과거 상투적으로 새로 배치된 국군부대를 골라 대공세를 취했고 이 작전은 어김없이 성공했었다. 나는 우리 군단이 전선을 담당한 사실을 중공군이 탐지한다면 그들이 공격의 유혹을 억누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적진 쪽으로 돌출한 금성지구는 그들에게 ‘눈의 가시’일 것

22) 창설식이 끝난 직후 우리는 벤 플리트 대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의 아들 중위 벤 플리트 2세가 실종됐다는 것이었다. 벤 플리트는 이미 이 소식을 알고 식에 참석했으나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자약했다. 그의 아들은 전폭기 조종사로 전날 밤 B-26기를 타고 군산 비행장을 발진, 북한 지역에 야간 폭격차 출격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이 분명했다.

한 달여 동안 잡혀 오는 적 포로들의 소속 부대를 유심히 지켜본 나는 5월부터 우리 정면에 중공군이 추가로 집결하고 있으며 그들의 집중 공격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8군사령부에 보고했다. 벤 플리트 장군은 곧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적의 집결 예상지점에 명령 수령 즉시 포격을 가하라. 탄약은 필요한 만큼 제한없이 사용하라”고 명령했다.²³⁾ 나는 포병단장 메이오 대령을 불러 제압포격을 명령했다.

그런데 메이오 대령은 난색을 표했다. 그는 탄약의 절용(節用)을 강조하는 포병 장교로서, 관측을 통해 목표를 확인하지 않는한 포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신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벤 플리트 장군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1952년 5월 중순, 군단의 7개 포병대대와 3개 사단 보유의 3개 포병대대 등 10개 포병대대와 보병부대의 박격포들이 적진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이 포격은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아침 10시경까지 계속됐다. 폭 20여km의 정면에서 180여 문의 야포와 박격포가 2만 발에 달하는 사격을 가한 것이다.

이 포격으로 적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공세를 취해 보려는 그들의 의지를 철저히 분쇄했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정면의 중공군은 이후 내가 군단을 떠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벤 플리트 장군은 미군의 탄약 보급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미 의회에서 미군의 탄약 소비량이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단성 있게 대(對)포격전을 결심했다. 그 후 내가 포격 지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자 벤 플리트는 “그 포격으로 인해 적의 기선을 꺾었고 적진도 잠잠해졌으므로 아군의 인명 피해를 줄인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비용·효과 면에서 싼값으로 전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공군이 한국군을 알

23) 이것을 ‘벤 플리트 탄약량’이라 불렀다.

잡아 보기 때문에 화력으로 적을 단단히 제압해야만 군단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기인 1952년 7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돌연 이종찬 육군총참모장을 해임하고 뜻밖에도 나를 그 후임으로 임명했다.²⁴⁾ 나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부산에 있는 이 대통령에게 신고하러 가는 도중에 동송동의 미 제8군사령부를 찾아가²⁵⁾ 밴 플리트 장군에게 이임인사를 하자 그는 나의 영전을 축하하며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나는 여러 이야기 끝에 총장직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냐고 그의 의견을 물었다. 정년퇴임을 1년 남긴 당시 59세의 밴 플리트 장군은 32세의 나이로 총참모장에 오르는 나에게 충고할 자격이 충분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밴 플리트는 한동안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대충 이런 요지의 말을 들려주었다.

“나는 귀관의 전력(前歷)으로 보아 총참모장직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소. 다만 말을 많이 하지 마시오. 그 대신 참모와 예하 지휘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또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하더라도 조금하계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룻밤 잘 잔 다음 결정을 내리시오.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결코 화내지 마시오.”

그의 충고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낄 수 있었다. 끝없는 전쟁, 복잡한 정치 정세, 그리고 혼란한 사회의 와중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나의 앞날을 그는 진심으로 염려했던 것이다.

24) 부산정치파동 후 경남 도지사 관사에 이 대통령, 이종찬, 밴 플리트가 모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총참모장 해임 의사를 표명하고 후임자를 거론했을 때 밴 플리트가 나를 추천했다고 한다.

25) 전방에서 대구 육본으로 가는 도중에 서울 동송동에 있는 8군사령부 지하 VIP실에서 지내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

8. 국군의 집중훈련과 교육기관 설립

제3군단의 현리 패전이 있기 전부터 우리 정부와 미군측은 국군의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존 10개 사단 이외에도 추가로 10개 사단을 증설해야 하며 소요 장비를 미국이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반면 미군측은 기존 사단조차 잘 싸우지 못하는 마당에 사단 증설은 낭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당했고 국군 사단들은 미군의 주장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청년 100만 명을 무장시키면 미군은 나가도 된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허구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 원수는 한국군 부대를 미군 장교들이 지휘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한국군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지휘 능력과 훈련이지 병력과 장비의 증강이 아니라는 미군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니, 그 당시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한국군 집중훈련’이다. 벤 플리트 장군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그리스에 군사 사절단장으로 있으면서 그리스군을 재건하여 공산 게릴라와 싸워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했다.

그 첫 단계로 1951년 7월에 야전훈련사령부(Field Training Command)가 설치되었다. 속초 남쪽에 훈련장이 마련되고, 미 제9군단 부군단장 크로스(Thomas Cross) 준장을 책임자로 한 150여 명의 경험 있는 미군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국군의 훈련을 담당했다.

제3사단을 시작으로 백지 상태에서 개인·분대·소대·중대 훈련에 이르는 9주간에 걸친 기초 훈련이 진행되었다. 사단장 이하 전 장병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훈련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전방에 다시 투입되었다. 훈련을 거치는 동안에 전투 중 손실된 인원과 장비가 100% 보충되었다. 제3사단에 이어 전투 중인 10개 사단 전부가 이듬해 말까지 훈련을 완료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여 전선에 투입된 사단들은 전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벤 플리트 장군은 한국군 병사들과 한국인들의 강인함은 인정하면서도 간부들의 리더십이 결여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간부들이 대부대를 지휘하는데 걸맞은 리더십 훈련을 받아본 바도 없고 실전에서 경험해 본 바도 없이 초고속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 육군의 지휘부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젊은 지휘관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했다.²⁶⁾

그리고 이들을 교육·훈련시키는 것이 한국군의 발전에 최우선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벤 플리트는 실제전투 다음으로 교육·훈련에 최우선을 두었다. 이 때문에 그는 야전부대와 훈련소 그리고 군사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 그는 전쟁 초반에 파괴된 군사학교와 훈련소들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재건하도록 노력했다. 1951년 8월 샴페니(Arthur Champeny) 준장을 초대사령관으로 ‘교육총감부(Replacement Training and Schools Command)’가 창설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후 보병학교, 포병학교, 통신학교가 재설립되었다.²⁷⁾ 12월에는 대구에 참모학교가 설치되었고, 제주도 훈련소가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26) 앞의 책, p. 360.

27) 이후 학교교육체계가 확대되어 ‘교육총본부(Korea Army Training Center)’로 개칭되었고, 다시 ‘전투발전교육사령부(Field Training Command)’가 창설되었다.

또 장교 250명을 선발해 그 중 150명을 포트 베닝(Fort Benning: 미 보병학교)에, 100명을 포트 실(Fort Sill: 미 포병학교)에 단기 유학시켜 장교들의 지휘 능력을 집중 교육한 결과 성과가 있자 이 일을 계속했다. 당시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들이 미국 병기·병참·화학학교 등에 2천 명 정도 유학을 갔으므로, 미국 병과학교가 한국군인들로 꽉 찬 듯 했다. 이들은 귀국하여 17개 관련 학교에서 교관 역할을 수행했다.²⁸⁾

또 벤 플리트는 장교 양성의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한국에 웨스트포인트와 같은 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이 대통령과 극동군사령부 및 워싱턴 당국자들에게 역설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52년 1월 20일에는 진해에 4년제 육군사관학교가 창설되었다.

그는 육사가 정식으로 들어설 태능에 미군 공병자재를 산더미 같이 수송해 놓았다. 그러나 육사는 군사원조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일은 미 의회 감사반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 자재는 반납되었고 육사는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육사는 초기에 궁색한 형편을 면키 어려웠다. 벤 플리트는 전 세계의 한국인들 그리고 자신의 미국 및 한국인 동지들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또 여러 경로로 모금 활동을 벌여 육사에 도서관을 건립했다.²⁹⁾

9. 한국군의 증편 및 증강

벤 플리트의 전기(傳記)에는 그 자신이 제8군사령관에 보직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육군을 증강시켜 상황이 허락하는한 유엔군 병력을 점진적으로

28) 1953년에는 15명의 장군이 미국 위탁교육 받았는데, 나는 총참모장 때 포트 레븐워스에 서 군단 및 군급 교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29) 훗날 대한민국은 벤 플리트 장군을 기념하여 육사에 그의 동상을 건립하였고, 그를 ‘한국 육사의 아버지(The Father of the Korean Military Academy)’라고 칭했다.

로 철수시키고, 그 대신에 한국군이 전쟁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군을 증편·증강시키려고 하는 그의 의도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이 대통령도 유엔군이 철수하는 시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산군을 격멸하고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도 한국군을 증강시키기를 원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증강문제는 밴 플리트 장군과 이 대통령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킨 초석이 되었다.³⁰⁾

밴 플리트는 초기에 한국군 부대들이 전투에서 크게 패했을 때, 이 부대들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해서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또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한국군 10개 사단 추가 창설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미 합참의 뜻을 직접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했을 때에도 그는 이 역할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³¹⁾

1952년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군 10개 사단의 추가 창설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밴 플리트는 그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는 협상이 결국 휴전으로 이어지고 뒤이어 유엔군의 철수와 함께 북한군과 중공군이 공세적인 작전을 재개하리라 예상했다.

밴 플리트는 이 대통령의 추가적인 사단 창설 요구를 지지하였지만,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편성하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중장기 목표라고 생각했다. 당장 지휘력을 가진 한국군 장교들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였다. 또한 미국이 NATO에 미군부대를 투입하고 일본 자위대를 지원하는 등 약 40여 개 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군의 새로운 조직에 필요한 무기·장비·보급물자를 모두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30) 밴 플리트 장군은 이 대통령을 존경했으며, 한·미 양국간의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을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이자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그를 흠모하였으며, 심지어 워싱턴과 이 대통령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에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동감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31) 『승리의 신념』, p. 359.

그렇지만 그는 한국군이 가능한한 단시일 내에 20개 사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군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며, 증편된 한국군이 미군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미국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믿었다.³²⁾ 벤 플리트 장군은 상급부대의 일부 고위급 참모들이 이 사실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군사령관으로서 고위급 참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투경험을 갖고 있었다.

나 자신이 한국군 증강에 대한 벤 플리트의 열의를 느끼고, 또 함께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억되는 사건이 있다. 1952년 12월 초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자기가 당선되면 6·25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고, 당시의 미국 국내외 사정이나 그의 아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도 충분히 한국 방문은 예견되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위한 환영행사와 회담을 계획하고 벤 플리트 장군에게 협조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한국 방문 일정은 비밀에 부쳐져 있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워싱턴의 참모들이 그의 방문일정을 비밀로 하도록 벤 플리트에게 지시하였고, 이 대통령과의 공식적인 만남도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³³⁾ 그 때문에 한국 외교관계자들이나 육군총참모장인 나 자신도 그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대통령 경호대가 나타난 것을 보고서야 방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도 벤 플리트의 호의에 힘입은 바가 컸다.

12월 3일 아침, 나는 아이젠하워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승

32) 앞의 책, p. 363. 그러나 리지웨이는 벤 플리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 경제가 이 사단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 자위대의 보장이 더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제8군사령관으로서 벤 플리트 장군은 자연스럽게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이겠지만, 미국은 보다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3) 위의 책, pp. 403-4.

동 미 8군사령부로 갔다. 이 자리에는 아이젠하워 외에 레드포드 태평양 함대사령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벤 플리트 제8군사령관, 라이언 미 군사 고문단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벤 플리트 장군이 일어서서 아이젠하워 아들의 보직에 대해 보고한 후,³⁴⁾ 이어서 “한국군 육군총참모장 백 장군이 한국 육군을 20개 사단으로 증편하는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소개했다. 나는 15~18분에 걸쳐 브리핑을 했다. 그 요지는 ‘한국 국민이 싸울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한국에는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으므로 이 계획에 의해 한국군 부대를 증편하면 미국의 인적자원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군 사단은 미군 사단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³⁵⁾ 이 보고를 들은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³⁶⁾

그런데 이후 두 가지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앙청 앞 광장에 수만 군중의 서울시민 환영대회를 열고 아이젠하워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었다. 나는 이 대통령을 수행하여 대회장에 미리 도착, 아이젠하워 일행이 참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뜻을 전해들은 아이젠하워 측은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한 행사는 일정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경호상의 문제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단지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미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10만 군중이 한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장시간 기다렸으나 아이젠하워는

34) 벤 플리트가 “각하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아들을 대대장에서 정보처로 발령했다”고 보고하자, 아이젠하워는 “인사는 군사령관의 소관이며, 본인은 내 아들이 적에게 포로가 되지 않기를 희망할 뿐이다”는 뜻의 언급을 했다.

35) 한국 육군 20개 사단 증편계획의 초안은 정래혁이 만들었다.

36) 벤 플리트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전쟁승리전략’을 지시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6·25전쟁의 종식’을 추구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끝내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단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왜 휴전을 반대해야 하는지 열변을 토하던 이 대통령은 이렇게 되자 갑자기 배석한 나를 불러 세우고 “미국에 아이젠하워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전쟁의 영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나의 손을 치켜들면서 “바로 백선엽 장군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부동 전투, 평양입성 전투 등지에서 전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를 수호한 군인이라고 나를 과찬했다. 군중은 열렬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나는 영겁결에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

그런데 2박3일의 아이젠하워 방문 일정³⁷⁾이 끝나는 날 또 일이 꼬였다.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당연히 경무대를 예방할 것으로 믿었다. 그는 전 각료를 경무대에 불러들이고 김태선³⁸⁾ 서울시장을 8군사령부로 보내 아이젠하워의 경무대 예방을 주선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8군사령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정문에서 퇴짜를 맞고 돌아오고 말았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과 백두진 총리가 나를 부르더니 “당신이 다시 교섭해 보게”라고 했다. 이미 경무대에는 의장대와 군악대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맡게 된 것이다. 나는 4성 장군의 육군총참모장으로서 미 8군 출입에는 문제가 없이 벤 플리트를 만날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그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측의 의사를 전했으나 반응이 없다”면서 클라크에게 직접 얘기해 보라고 권했다.

그래서 옆방에 있는³⁹⁾ 클라크에게 가서, “큰일 났다. 아이크로 하여금 경무대를 꼭 방문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클라크도 “경호실의 일”이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와서 경무대도

37) 아이젠하워는 광릉에 있는 미 제3사단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1~2개소의 미군 부대를 방문했다.

38) 그가 당시 영어 제일 잘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39) 그때 아이젠하워는 동송동 미 제8군사령부(지금의 예충)의 사령관실, 클라크는 참모장실, 그리고 벤 플리트는 비서실에 있었다.

방문하지 않으면 예의가 되겠는가? 그러면 앞으로 미군이 한국군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 말을 듣자 얼굴이 상기된 클라크는 잠시 기다려보라고 한 후 아이젠하워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오후 6시에 간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아이젠하워의 경무대 예방 주선은 성공했고, 그는 예정된 시간에 경무대를 방문했다.

아이젠하워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지 일주일 후쯤에 이번에는 미 대통령 선거전에서 낙선한 스티븐슨(Adlai Stevenson)이 방한했다. 나는 그를 안내하여 전후방의 부대를 방문하게 했다. 그는 한국군을 증강하면 미군 철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이젠하워와 스티븐슨 등 미국의 정치 지도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군 증강계획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절대절명이었고, 휴전을 결심한 미국도 전후 미군의 주력을 한국에서 철수하자면 한국군이 자위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점진적인 한국군 전력 보강과 추가적인 부대의 창설을 허용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인 클라크 장군도 밴 플리트와 의견을 같이 했다. 재정 및 장비 지원의 우선권에서 밀려 부대 확장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밴 플리트는 전선상의 미군 사단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군 10개 사단의 포병부대를 증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군의 전투부대들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한국군은 전투능력이 뛰어난 지휘관들을 양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선에 배치된 사단의 소요를 초과해서 훈련된 우수한 병사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밴 플리트는 이 초과 병력을 근거로, 극동군사령부와 육군성에 추가적인 한국군 사단 창설을 위한 승인과 재원을 요구했다.⁴⁰⁾

결국 그의 열의와 강경한 태도에 힘입어 한국군 20개 사단 창설 계획안을 미 육군성이 수용하였다. 그리고 밴 플리트 장군이 제8군사령관으로 재

40) 『승리의 신념』, p. 364.

직하는 동안 새로 창설된 4개의 한국군 사단이 전선에 배치되었다.⁴¹⁾

벤 플리트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새로운 한국군 부대 창설식에 열심히 참석하였고, 한국군 부대 지휘관들의 훌륭한 리더십을 치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미 군사고문단 프로그램과 군사고문단 근무에 유능한 장교들이 선발되도록 하고 또 그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과거 그리스에서의 경험처럼 그들의 자문이 한국군 지휘관들의 작전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⁴²⁾

10. 맺 음 말

벤 플리트 장군은 약 2년 동안 미 제8군사령관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한편으로 전투를 지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군 재건과 전력 증강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였고, 전투와 한국군 증강 양면에서 진력했다.

이 결과로 대한민국 육군은 급속히 성장하여 여러 면에서 개선의 징후를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했다. 육군총참모장 취임시만 해도 10개 사단이던 육군은 1953년 7월 휴전 시까지 16개 사단으로 증편되어, 당시 전체 전선의 2/3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해 말까지는 20개 사단으로 계획된 증편을 완료하였다.

군대는 인원과 장비만을 모아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불과 1년여의 단기간에 10개 전투사단이 창설된 배경에는 우리 정부 및 육군본부와 미 제8군, 미 군사고문단의 불철주야의 노력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벤 플리트 장군의 공로가 컸다.⁴³⁾

41) 앞의 책.

42) 위의 책.

개인적으로도 나를 포함한 한국의 많은 장교들은 그의 개성(個性)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으며, 그의 공세적인 스타일과 직설적이고 우호적이며 솔직한 태도를 좋아했다. 또한 그에게서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한국군 장교들을 인종적인 편견 없이 대우하였고, 우리들의 의견과 조언을 경청했다.

한국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정은 그가 은퇴한 후인 1954년 4월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를 담당했을 때에도 나타났다. 그는 최종조사보고서에서 미국의 이익에 필수적인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을 바로 한국이라고 강조하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결론을 내렸다. 또 그는 자신의 제안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다.⁴⁴⁾

벤 플리트 장군은 교육·훈련과 전력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육군을 정예군으로 발돋움하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또한, 그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공헌이 오늘날 우리 육군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5. 10. 7, 심사완료일 : 2005. 11. 18)

주제어 : 6·25전쟁, 벤 플리트, 백선엽, 한국 육군사관학교, 미 제8군사령관

43) 이 공로가 인정되어 1953년 2월 11일 제8군사령부에서 거행된 이·취임식에서 벤 플리트 장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44) 앞의 책, pp. 437-445.

<ABSTRACT>

General Van Fleet and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Paik, Sun-yup

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war leadership of the General Van Fleet, who served as the commander of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role he assumed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I believe, as an ROK Army officer who had more contact with the general than any other, that my experience with and perspective upon him will be of value to scholars.

During the two years he was the Eighth Army commander, Van Fleet focused his attention on the battles and on enhancing the battle capacity of the ROK Armed Forces. He mounted a particular effort to increase the ROK officers' efficiency in commanding their units and battle performance. For that aim he had many officers study at American educational institutes, and founded in Korea various educational institutes, among them the Korea Military Academy. He was also the founder of numerous corps-level units and many divisions. As a result the ROK Army achieved rapid growth and exhibited distinct signs of progress.

Many ROK officers, including myself, received positive impression of his individuality, and were fond of his assertive character and affable, honest attitude. His experience and knowledge of guerrilla warfare were of particular value to us.

General Van Fleet took the forerunner's place in nurturing the ROK Army

to a well-trained military organization through education, training and increased battle capacity. That his efforts contributed to securing the foundation of the present ROK Armed Forces is undeniable.

Key Words : The Korean War, General Van Fleet, General Paik Sun-yup, The Korea Military Academy, The 8th United States Army Commander

K C I